

기관 돋보기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설립되어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한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권익옹호를 위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지역주민에게 친구로, 직원에게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회 연속 'A등급' 및 2015년 사회복지시설풍평가 최우수시설 선정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충북도내 장애인복지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오재원 관장 등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4회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기관' 제도적 보완에 앞서 '장애 인식 개선' 강조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은 24년의 역사를 지나며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 아래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주민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종사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으로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설립 이래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보건복지부 평가 4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밖에도 2012년 충북 중증장애

인 일감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보건복지사업 선정,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선정으로 대통령 표창, 2020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최고등급 선정 및 9회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에는 하루 평균 3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며, 600명 이상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으로

작품공모전, 유아장애인차별예방교육, 학교순회교육 등 지역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하고 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특화 사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인권교육, 권익옹호교육을 통해 윤리의식 강화, 권리보호, 권익옹호지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으로 숲체험을 통한 여가활동 및 장애인의 스트레스 완화, 노인·장애인을 위한 치매예방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 외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현장 중심 맞춤형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1인 1기 장애인·기업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돕고 있다.

오재원 관장은 “24년 전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였던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9년 3배 이상의 크기로 확장이전하며 일 평균 300명 이상의 많은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관내 이용 공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협소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등한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실현되기에 앞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2022년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등 장애인의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인식개선과 권익옹호를 통해 기본권 보장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희망2022 나눔캠페인'이 사랑의 온도 125도를 달성하며 62일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충북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 88억3500만원 달성

62일간 나눔캠페인 종료... 어려운 여건 속 '최대역'

'희망2022 나눔캠페인'이 사랑의 온도 125도를 달성하며, 62일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3일 청주 상당공원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70억7300만원을 목표로 62일간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88억35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전년 캠페인 모금액 88억2900만원을 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성금은 현물기부 53억1000만원(60.1%), 물품기부 35억2500만원(39.9%)으로 집계됐다.

개인기부는 27억8000만원(31.5%), 법인기부는 60억5500만원(68.5%)으

로 나타났다. 개인 기부금은 전년 대비 5억8000만원 감소했지만, 법인기부금은 5억8600만원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로 전년 캠페인 27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기면서 충북은 '11년 연속 100도 달성'의 기록을 세웠다.

충북모금회는 성금을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영수 회장은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시신 마음과 희망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장애인 보건의료와 복지지원 연계하는 허브역할 담당

충북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심점이 될 '충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0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개소식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장관,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변창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며 도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병·의원, 시·군 보건소, 장애인시설 등 보건의료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 환자는 센터를 통해 지역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장애인건강주치

의 병원 등과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필요시에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을 통해 축적되는 통계자료는 지역 의료·복지지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지역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장을 맡은 방희태 충북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는 “충북 지역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하거나 힘든 점들을 잘 파악해 불편함 없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12월 기준 충북도의 장애인구는 9만7839명이며, 도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의료접근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4곳과 장애인화 산부인과 1곳,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병원 10곳을 지정·운영중에 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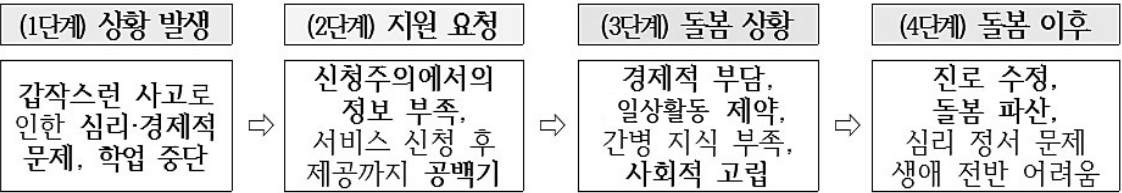
H.P: 010-9566-0504 E-mail: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책’ 마련

< 가족 돌봄 청년의 단계별 직면 문제 >



학교·대학·청년센터 등 조사 통해 실태 파악
발굴 청년에 돌봄·생계·의료·학습 즉각 지원

정부가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 돌봄 청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다음달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장애인 질병, 약물 등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부르며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이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실태조사 결정은 지난해 5월 한 20대 남성이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약 8개월 동안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족 돌봄 청년의 현황을 들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생, 대학생이 아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 청년센터 등이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한 행정조사나 온라인 패널 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족 돌봄 청년은 즉각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은 기존의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제도와 연계된다. 기존 제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교육급여,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 을 중심으로 법무처 데스크포스

(TF)를 꾸려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돌봄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병원-학교로 이어지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병원은 의료사회복지사, 학교는 교육복지사와 교육복지 담당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대문구의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마을 행정사와 마을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자기 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풍수해보험 전액 지원

행안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상황 따라 최대 92%... 오는 4월 5일 시행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태풍, 홍수 등 풍수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70%의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 준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액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 시설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한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 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상향돼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어 재해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다. 한편 개정안에는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를 보험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혹은 보험관계 단체로 규정했다. 가입 현황과 사고 발생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4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청소년 유해업소 인근 설치 금지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청소년계임제공업·유흥주점·청소년 출입금지 노래방 등

학대를 겪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를 청소년 유해업소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대 등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기 위한 쉼터의 운영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계임제공업, 유흥주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이 포함된다. 또 쉼터는 가실·상담실·화장실·조리실·의무실·집단활동실·비상재해대피시설 등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쉼터 내에서는 남자와 여아를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며, 주 7일,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입소 정원 은 4명으로,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결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 장애 학생들 대학입학기회 확대 ‘총력’

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 발표
대학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정부가 장애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단계에서 준수 사항, 수험생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 기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 편의 제공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제공

하기로 했다. 또 선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저소득 가정 등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인원의 상한선을 그대로 두어 10%를 의무화하면 서, 대학 장애인 선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애 학생의 진로와 대입 상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

입 상담센터 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장애 학생이 접근하기 쉬운 대입 자료를 제공한다. 각 대학에는 장애 학생의 대입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평가와 연구·연수 등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올해 마련한다.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을 7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 각 5000만원씩 지원한다. 거점대학은 장애인 진로·취업을 지원하고 전공 서적 대체자료를 제작한다. 국립대학에는 장애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권고하고, 장애 학생의 이용권을 위해 노후 건물의 시설도 개선한다.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자가진단키트 무료 배포

3월부터 입산부·방역취약계층 등으로 대상 확대
키트 2월 7,080만개, 3월 1억9000만개 국내 공급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 키트)가 무상 배포된다. 정부는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데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트는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무상 배포될 예정이며, 유치원·초등학교 배포는 시도 교육

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입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해 판매한다. 또 매점매식·폭리 등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의 수출물량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이날 기준으로, 2월 중 7,080만개, 3월 중 1억9000만개의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성 맞춤 ‘아동·정신건강’ 사회서비스 확대

지원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40% 이하로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별 지역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크게 늘어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시에서는 입산부 가사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를 신

규 추진한다. 특히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늘린다.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 해 충남도 9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토탈케어는 지원대상이자 전 소득구간까지 확대돼 육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시·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장애학생 교육관에 133억원 투입

충북도특수교육원, 2025년 3월 개관 목표 조성
숲체험 · 모험놀이 등 감성숲도... 지역주민 이용 가능

충북도특수교육원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관을 만든다. 특수교육원 유희부지에 연면적 3455㎡, 3층 규모로 설립되는 이 교육관에는 시설공사비 118억5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오는 4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한 뒤 202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장애학생의 치유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감성숲도 조성한다.

이 감성숲은 교육관과 연계해 특수교육원내 유희부지에 15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100㎡ 규모로 만든다. 2023년 3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3월에 교육관 개관 시기에 맞춰 동시 개장할 예정이다. 교육관은 장애 학생의 전환 교육을 위한 자립지원실, 직업교육실,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실, 다목적실, 시대변화에 따른 적응지원을 위한 미래

교육지원실, 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성교육실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휴게실,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체험실 등도 갖춘다. 감성숲은 숲체험, 모험놀이, 물놀이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교육관과 연계하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식물과 휴식장소, 교육 공간 등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원은 감성숲을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 지역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원은 이를 위한 교육관 지원단과 감성숲 지원단을 꾸려 공간배치부터 각종 기자재와 시설 운영방안까지 논의하고 완공 후 점검도 맡는다. 지원단은 교사, 학부모, 관련단체,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해 사업 종료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옥순 원장은 “교육관 증축과 감성숲 조성이 완료되면, 장애학생의 다각적인 자립지원 및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특수교육원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분이 없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설 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군내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 떡 나눔을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1500명에 1800kg 전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는 설 명절을 맞아 군내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 떡 나눔을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떡국 떡 1,800kg를 대한적십자 진천봉사회와 진천다담돌봄사회원들과 1kg씩 직접 소포장하여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푸드뱅크 수혜자 등 군내 취약계층 1,500여명에게 설 명절 따뜻한 떡국을 드실 수 있도록 전달했다. 유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진천군 복지취약계층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한적십자 진천봉사회, 진천다담돌봄사회의 회원분들의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각 가정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대한적십자 진천봉사회는 진천군 1,000여가정의 푸드뱅크 수혜자들의 기부식품배분을 2년째 도맡아 봉사하고 있으며, 진천다담돌봄사회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년째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음성군, 청소년 기자단 모집

주1회 이상 기자 활동... 활동비, 봉사시간 혜택 제공

음성군 대소면 대소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덕영)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생각과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슈와 정책 등을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활동 문화를 만들어 갈 청소년 기자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소년 기자단

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 다양한 기사작성,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영상촬영 편집, 유튜브 방송 등을 배운다. 교육 후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와 행사 등 사회분야 전반을 취재해 청소년들의 활동과 정보를 공유한다. 신청자격은 거주지가 음성군이 며 청소년 기자단 활동(주1회 이상)에 관심있는 청소년(12세~19세)이

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모바일 QR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송부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활동비, 봉사시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소청소년문화의집(043-871-40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대비학습반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인터넷 강좌 · 교재 등 지원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신춘옥)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험일 전날까지 검정고시대비학습반을 운영한다.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은 혼자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인터넷 강의와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하고, 센터 내 자습실을 개방하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검정고시대비학습반' 운영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춘옥 센터장은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대비학습반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여 전원 합격하기를 바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건강검진, 급식지원, 동행카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소년지원센터(043-744-5700)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인 '가스레인지 사업단'이 출범식을 갖고 진천관내 가스 안전업무를 본격 수행하기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진천시니어클럽 “가스레인지 사업단 출격 준비완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체 안전지원 업무 수행
만 60세 이상 30명 채용... 노인 일자리 창출 힘써

진천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진천시니어클럽(관장 이은주) '가스레인지'가 이달 중 출동할 예정이다. '가스레인지'는 관내 LP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상시 가스 안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가스 공급자에게 안내하여 부적합 사항이 즉각 개선 조치 되도록 안전지원 업무를 수행하

게 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채용했으며, 지난 3일과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 관리원을 양성했다. 특히 관내 취약계층의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산 · 인명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시니어 가스

레인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이 모(72) 어르신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렘과 지역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업이 빨리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관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진천시니어클럽이 되겠다”고 말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신학기 입학 후원금 전달

도내 위탁아동 10명에 교복 등 학교생활 용품 지원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8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및 RE:BUD와 함께 '청주 위탁가정아동 신학기 입학 후원금'을 전달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지혜)는 8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및 RE:BUD와 함께 '청주 위탁가정아동 신학기 입학 후원' 전

달식을 가졌다. RE:BUD는 버려지는 교복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판매 제품에 대한 수익금을 위탁가정 아동의 신학기 지원금으로 전달하였으며, 본 전달식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후원금은 충북도 내 초 · 중 · 고 위탁아동 10명에게 교복 및 물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전달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발판의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내 위탁아동을 위한 생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에 대한 뜻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청주복지재단, 복지종사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청주복지재단(이사장 한범택)은 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신체폭력, 언어 · 정서적 폭력은 물론 다양한 법률대처 상황에 놓인 복지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주복지재단은 법률상담을

위해 박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용방법은 청주복지재단 홈페이지(www.cjwf.net)에 접속해 '청주시 복지종사자 법률상담'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리면,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을 해주게 되며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처리된

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복지재단 복지협력팀(043-222-3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복지재단은 복지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교육, 호신술 · 외상회복교육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고용및직업

주거지원

보육및교육

의료및건강

요양및돌봄

정신및심리정서지원

문화및여가

권익보장및법률

일상생활지원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4차 접종 계획 발표… 면역저하자·요양병원 대상

면역저하자 130만명,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종사자 50만명 대상

3차 접종 4개월 후… “고령층 등 일반인 4차 접종은 검토 안해”

노바백스 접종 21일 사전예약 시작… 접종은 내달 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4차 추가 접종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계획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가능 ※예외적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발생 시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가능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접종 방법	의사 소견 확인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 접종	요양병원·자체 접종, 요양시설·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접종 일정	2월 14일부터 당일 접종 또는 예약 가능 예약 시 2월 28일부터 접종일 선택	3월 첫째 주부터 순차 접종 (방역상 필요에 따라 2월 14일부터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공감 642호〉

■ 주요 내용

◆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면역저하자(약 130만명),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약 50만명) 대상 추가접종 시행
-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 또는 집단 감염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 노바백스 백신 접종, 14일부터 시작

- 14일부터 고위험군(자체접종·방문접종), 일반 국민(18세 이상-당일접종) 시작
- 사전예약은 21일부터, 접종은 내달 7일부터 실시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 2월 2주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높음”으로 평가
- 전반적인 발생 급증에 따라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증가세로 전환

① 면역력저하자

4차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명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면역저자는 중앙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등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등), HIV 감염 환자,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는 경우다.

이밖에 의사 소견에 따라 앞서 언급된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종이 가능하다.

권근용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면역저하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중등도 이상의 면역저하자로 새롭게(대상자들) 설정하면서 분류 기준이 일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차 접종 당시 ‘면역저하자’로 분류돼 접종을 받았으나, 현재 해당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 당시에는 면역저하자였으나 현재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이들은 카카오톡·네이버 앱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한 예약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시설 등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이뤄진다.

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대상자가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고, 입원·입소자의 경우 주로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감염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첫째 주부터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마친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이들은 3차 접종 4개월(12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단, 해당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가 시급한 경우, 당장 이날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간격과 관련해 “면역저자에 대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3~5개월 정도 간격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백신 접종을 통한) 중화항체가 저하되는 시점, 3차 접종 후 돌파감염 또는 위중증·사망 누적 발생률과 오미크론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다만 유행상황이 좀 더 촉박하거나 아니면 수술, 출국 등의 일정으로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3개월, 즉 90일을 최소 접종 간격으로 하고 4개월 이후로 접종하도록 실시기준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4차 접종 효과가 서서히 감소하는 4개월 후라도 오미크론 외의 신규 변이 출현 등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5차 접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접종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에서는 자체 접종, 요양시설에서는 보건소나 시설 계약의사의 방문접종으로 진행된다.

③ 4차 접종 국외동향 등

추진단은 이번 4차 접종 시행계획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 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4차 접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예방 효과를 보면, 4차 접종 후 항체가가 상승하면서 감염 및 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난 것으로 발표됐다”며 4차 접종 효과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효과를 평가한 결과, 감염 위험은 2배 이상, 중증 악화 위험은 3~5배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4차 접종 효과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백신 접종은 발열·근육통 등 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다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지 등 중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자료나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고령층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접종 대상자 자체가 일부인 만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청장은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그 외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접종의 위험·이득을 살펴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종을 확대할 계획을 현재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고위험군 일부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방역패스와 연계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모두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청장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재 3차 접종률이 85% 수준으로 올해 1~2월 낮은 감염률과 위중증률을 보여 접종 효과가 상당 부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감염되더라도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3차 접종과 치료제 두 가지 수단이 모두 유효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60대 이상도 현 시점에서 두 조치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조치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분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본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청장은 “13~18세 연령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차까지의 기본 접종에 집중하고 있고, 18세인 고3은 3차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안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5~11세 소아 접종과 관련해선 “올해 계약한 화이자 소아용 백신도 계약에 포함돼있어 물량 확보는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식약처에서 백신 허가 사항을 검토 중이라 이러한(접종) 허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④ 노바백스 백신 접종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백신도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2차 접종 대상자, 의학적 사유로 1, 2차 접종 이후 교차접종을 하는 경우 노바백스를 접종할 수 있다. 이 중 접종 의료기관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우선으로 접종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독감 백신 등을 통해 경험해본 ‘합성항원’ 백신 플랫폼으로 개발돼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또 국내 유통되는 노바백스 백신은 일화용 주사기(프리필드 시린지)로 공급돼 소변 없이 접종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고위험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시작했다.

일반 국민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우선으로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3월 6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약 1200개소의 지정위탁 기관에서만 당일 접종이 시행된다. 3월 7일부터는 의료기관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의 예약접종은 21일부터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한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3월 7일부터 예약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 약 1만2900개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⑤ 위험도 평가4주 연속 ‘높음’

2월 2주차(2.6.~2.12.)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나타나 4주 연속 ‘높음’을 유지했다.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6.9%로 전주 92.1%보다 4.8%p 상승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각각 0.19%, 0.42%로 나타났다. 각각 델타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난에 따라 상승했다. 전국 15.8%→18.7%, 수도권 15.1%→19.4%로 올랐다. 비수도권만 17.6%→17.1%로 소폭 감소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은 전주 81.1% 대비 4%p 올라 85.1%를 기록했다. 확진자는 3주연속 2배 증가해 일일 5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6041명으로 전주 2만2655명 대비 2만3386명 증가했다. 주간 입원 환자 역시 9600명으로 전주보다 1153명 늘어났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각각 232명, 187명으로 전주 대비 99명, 41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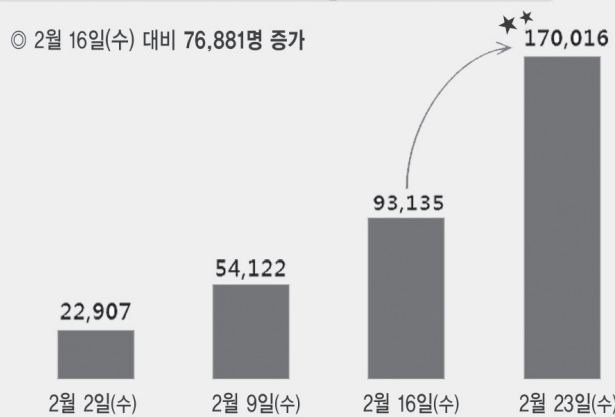
정 청장은 “급격한 발생 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60세 이상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2월 23일(수) 현재상황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0,016명

◎ 2월 16일(수) 대비 76,881명 증가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시행됩니다

☑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접종 실시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시설 대상자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 또는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언제부터 추가접종 받을 수 있나요?

2월 14일(월)부터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면역저하자: 2월 14일(월)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가능

*사전예약 시 2월 28일(월)부터 접종일 선택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여부 등 의사소견 확인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 접종이 진행됩니다.(mRNA 백신)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3월 첫째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

☑ 18세 이상의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월 첫째주~, 접종 실시

*필요한 경우 접종간격을 고려해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접종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합니다. (mRNA 백신)

☑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행

(당일접종)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우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받기

(예약접종) 2월 21일(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실시

3월 7일(월)부터 사전예약자에 한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복지광장



박 상 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고독사(孤獨死)가 유독 많은 일본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드물지 않다. 그 중 하나가 2013년 개봉된 재제 다카하시 감독의 '안토키노이노치'다. 우리나라에선 '고독사라는 제목으로 개봉됐다. 이 영화에선 사다 마사시의 2009년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고독사'를 처리하는 직업이 등장한다. 홀로 사망한 노인의 유품정리 업을 하게 된 두 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대면하고 세상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사(無緣死)에

대한 슬픈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에선 무연사회(無緣社會)라는 말과 무연사 또는 고독사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무연사회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는 사회' '인연이 없는 사회'라는 뜻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안전망 해체가 가져온 심각한 현실이 담겨 있다. 무연사회에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아무도 모른 채 수개월째 방치되는 사례도 많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일본에선 3, 40대 독신 중년층까지 "나도 혹시 무연사할 지 모른다"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전유물로 알고 있던 고독사의 연령층이 대폭 내려왔다.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가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3년 만에 52%로 급상승했다. 의외인 것은 청년 고독사가 2020년 102명으로 최근 3년 새 62%로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직장을 잃고 연인과의 헤어짐 뒤 7명짜리 원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30대 초반의 남성 직장인, '서른엔 행복해지기

했다'는 책만 덩그러니 남긴 채 작은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개월 만에 발견된 30대 남성 등 최근 2년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 청년 고독사 사례는 흔하다.

30대면 예전같으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전업주부 또는 직장맘으로 질풍노도(疾風怒濤)같은 시간을 보낼 나이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안정된 기반을 닦기 위해 젊음을 불태울 소중한 시기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20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못해 방황하며 나이를 먹고 직장도, 사랑도 놓친 30대는 무엇하나 성취하지 못한채 하늘높이 뛰는 집값과 갈수록 높아지는 계층사다리의 맨 아래칸에서 헛발질하며 절망하고 있다.

사회적인 무관심과 소외감, 초 핵가족 시대 가족과의 단절에 취업난과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일찍 낙화한 꽃처럼 젊음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현실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자살 총동을 시달리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2020년 10월~11월)에서 여성 32.8%, 남성 19.4%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라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청년 10명 중 2~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삶의 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백수들에겐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어졌다. 미래가 암담한 청년들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홀로 생활에서 인간관계마저 단절되면 깊은 좌절감을 견디다 못해 외로운 죽음에 내몰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능한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청년들을 더욱 절망에 빠트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은 더 낮아졌고 청년들의 꿈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책상 위에 구직 정보가 담긴 수많은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서른엔 행복'을 갈구하는 청년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울한 자화상이다. 차기 대통령은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홀로 죽음에 내몰리는 청년들

메타버스

다시 등장한 메타버스와 사회복지



나 동 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메타버스?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비대면 생활과 함께 메타버스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던 중 2020년 가을에 미국에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는 말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알게 되었다. 급기야 메타버스의 위상을 파악한 정부는 2021년 7월에 뉴딜 정책 2.0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를 신산업육성의 주제로 정했고 4차산업혁명의 귀결점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메타버스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시킬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는 메타버스시대가 도래하겠구나하고 미래를 상상해 본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메타버스환경과 밀접한 상황으로 변화된 모습을 떠올려 본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세계를 의미하는 버스(verse)를 합한 용어이다. 즉, 지금의 현실세계와 웹상에서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두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또 하나의 공동체와 같은 세계를 만들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컴퓨터의 웹상에서 형성한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의 나를 재현한 캐릭터를 의미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들은 변화된 공동체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가상세계와 같은 환경을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인 1992년에 스티븐슨(Stephenson)이 저술한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라는 소설에서 등장시켰고 여기에서 보여준 메타버스의 세계를 2003년에 본격적으로 현실화한 최초의 가상세계가 린든 랩(Linden Lab)이 만든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가 있었

다. 그 이후로 잠깐 사용되었지만 잠잠하다가 코로나로 사람들의 생활이 비대면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자 이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에 사용되었던 말을 알고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모르고 있었으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하고 실체가 없다고 일컫는 용어라고 한다. 이유는 많은 기술적인 용어들이 메타버스(metaverse)로 바뀌면서 그 개념이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어찌되었건 간에 메타버스의 확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양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게 되고 질적으로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가을에 메타버스에 관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조사해 보았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행동도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환경에 따라 어떻게 영향받는 지, 그리고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주변에서 변화하는 메타버스환경은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여 우선 메타버스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응답할 것을 예측하여 설문지에 메타버스의 유형을 설명한 후에 질문해보니 안다는 반응이 다소 높아졌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가 뉴딜정책 2.0에서 메타버스를 신산업육성의 주제로 삼겠다고 한 내용을 들어봤느냐를 묻은 결과, 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1%로 나타났다. 낮은 이유는 많은 기술적인 용어들이 생소했던 듯한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는 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3.0%로 나타나 미래에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시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메타버스가 다시 등장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환경도 바뀌게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의 양상도 변하지 않을까?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도 있지 않을까? 원초하는 사회복지사의 접근도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러한 궁금함에 해답을 찾으려면 사회복지사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강 이 술

은유주간보호센터 과장

'현장의 목소리'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며 다시 한 번 내가 사회복지자를 하며 살아온 인생을 돌아켜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에 이곳에 글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분들과 이 글을 읽게 되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사를 드린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구나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자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선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라는 이 네 글자가 내 안에서 점점 변화하며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리고는 한다. 그 변화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조금 씁쓸하지만 말이다.

사회복지자를 전공하면서 수많은 강의들을 들으며 부끄럽지만 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서로 반증하며 발전시켜온 사회복지 기법들을 비롯해 노인·청소년·아동·다문화·미혼모·장애인·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자를 배우다 보면 내가 장래에 사회복지사가 되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영예로운 일을 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자신감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며 장애인 복지 분야로 들어와 약 10년간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감을 잃고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한 삶을 보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다시 말해 '소진' 증상을 겪으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 다른 현상이 겪는 어려움은 그 현장에서밖에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비단 그 어려움은 노인복지현장과 아동복지 현장처럼 분야가 다른 경우 뿐 아니라 같은 분야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 현장 내에서도 각각의 현장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언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 옆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며 난 그러한 다양

한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그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처음 사회복지자를 할 때의 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페르소나를 보여주며 나 자신 역시 보람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대로 얻어 힘을 내곤 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며 돌이켜 본 내 모습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한 번에 사용해 그 긍정의 페르소나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클라이언트와의 라포형성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다. 그런 와중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서 있었지만 그 내실을 보면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온 지 약 5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굳어져 버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나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발달장애를 가진 어느 한 클라이언트가 선물해준 자그마한 포춘퀴기 하나에 작은 금이 가게 되었다. 조그만 과자 안에 종이로 문구가 적혀있는 포춘퀴기 속에서 내가 발견한 문구는 정말 단순한 한 문장이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웃어주지 못함에도 불

구하고 내가 웃을 때마다 언제나 진심으로 웃어주는, 일상의 반복되는 삶 속에 파묻힌 나는 가질 수 없는 순수함을 간직한 클라이언트가 전해준 한 문장의 문구는 나의 가슴 안에서 자그마한 파문을 만들어 내었다.

그 파문은 처음에는 자그마한 감동이었지만 이내 내 안에서 점점 커져나가 '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가?', '난 감사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일을 하며 행복한가?' 라는 물음들을 낳았고, 그런 물음들은 이내 대학 시절 사회복지자를 전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일은 물론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물음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 난 아직도 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사회복지자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 후회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은 무감각 속에 느끼지 못하더라도 근처에 행복이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나와는 다른 어려움을 겪으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될 예비사회복지사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행복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늘 곁에 있는 것이라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마치며 2022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사기죄의 범인인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즉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를 본

형사배상명령제도

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형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내용을 심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정보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그 정보를 이용하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동정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조예정 /1월 27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슬지 대리

복지정보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가]2022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내용: 생계,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심리정서치료비
- 지원자격: 시,군,구 등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담당자(개인신청불가)
- 지원금액: 생계비 최대 120만원 (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지원기간: 22년 신청월~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www.m-letter.or.kr/>
- 문의: 02-2613-8864

[희망지구 기아대책]취약계층 아동가정 캠페인 사례 모집

- 모집대상: 매우 열악한 환경의 취약 가정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구, 기아대책 모금 캠페인/방송 사례 제공 및 촬영에 동의한 사례 가정
- * 신청 가능 아동 나이는 18세 이하
- 모집내용: 복지사각지대 가정으로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포함한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한 가구)-환아/의료, 결식/생계 어려움/열악한 주거환경/아동보호시설 아동, 청소년미혼모 등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공공기관/복지관/학교/병원 등)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규모: 최소 1백만원~최대 1천만원 지원
- 문의: 02-2085-8318
- 참고: <https://hope.kfhi.or.kr/>

[충북사회복지협의회]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유공자 추천 요청

- 추천분야: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 추천대상: 인적·물적·생명나눔 분야에 걸쳐 나눔 활성화에 헌신해 온 개인 및 단체(기업)
- 훈격별 수공기간: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이상), 장관·민간단체장표창(3년 이상)

- 포상규모: 135명 이내(예정)
- 추천기한: ~2022.3.11.(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본 협의회 홈페이지(<http://www.cwin.or.kr/>) 공지사항 참고
- 제출방법: 이메일(cbssn@naver.com) 제출 및 우편 모두 제출
- 문의: 043-234-0840

[사단법인 오픈월드]안경무로지원사업(우리아이 밝은아이 EYE)

- 사업대상: 시력에 어려움을 느껴 안경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용: 맞춤안경 무상지원(1인 10만원 상당)
- 지원방법: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 제출기간: 2022.2.7.(월)~3.11.(금)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고(<https://www.openworldkr.org/default/>)
- 제출처: 메일(bmoomi@openworldkr.org), 팩스(02-2607-2050)

[사단법인 행복한가]2022년 아동·청소년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중위소득 80%이하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내용: 생계,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심리정서치료비
- 지원자격: 시,군,구 등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담당자(개인신청불가)
- 지원금액: 생계비 최대 120만원 (자세한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지원기간: 22년 신청월~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www.m-letter.or.kr/>
- 문의: 02-2613-8864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충청회]2022년도 LPG소형 저장탱크(사회복지시설) 보급사업 안내

- 사업내용: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등의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

(국비 80%, 희망충전기금 10%, 사용자 10%)

* 사용자: 사회복지시설

-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약 ₩900,000 ~ ₩1,200,000 내외(해당 시설 시공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구체적 대상은 첨부문서 참조)
- 사업절차: 수요조사→시공설계→시공입찰→시공→LPG공급
- 신청서 제출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Fax, 02-555-3890 E-mail: master@korealpg.or.kr)
- 문의: 02-445-3131
- 참고: <http://www.korealpg.or.kr/>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2022 희망동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사업대상: 아동을 포함한 가정 중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 (사례관리가 가능한 지역복지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실 등)
- 지원내용: 생계비(최대 600만원), 의료비(최대 1,000만원), 주거비(최대 500만원), 교육비(최대 300만원), 심리정서 치료비(검사비 및 치료비-최대 10회 기준)
- * 1가정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원칙, 단 초과 시 내부 심의에 의한 지원 논의
- 신청경로: <https://hope.kfhi.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의: 02-2085-8318

[코아드]코아드 자동차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자원 봉사자 모집

▶자원봉사동아리 굿나유 3기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6-1391

▶구성품 조립 및 환경미화 봉사
관리센터: 보람근로원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4-2271

▶마을활동가 모집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88-3060

▶성인장애인 검정고시 프로그램 학습지원
관리센터: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95-2505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16-1365

▶홍보물품 준비활동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731-3685

▶밀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66-4761

▶업무보조활동
관리센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65-0401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834-3411

▶학습지도 봉사
관리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 ~ 3.31
전화번호: 043-273-507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누리재능기부복지회, 문화·예술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누리재능기부복지회(단장 김금자)는 지난 3일 청주시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 봉사활동

을 진행했다. 누리재능기부복지회는 2018년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김금자 단장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행사가 어려운 시점에 공연 기회를 마련해준 센터에 감사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제11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공모

{ 희망멘토링 분야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 실천자를 발굴, 포상합니다.
우리 이웃에서 멘토링을 하고 계신 개인 및 단체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대상

- 개인(멘토, 코디네이터 등) 또는 단체(기관) 풍부한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공모일정

- 접수기간 4. 29(금) 18:00까지
- 예비심사 5월
- 본심 및 공적 심사 6 ~ 7월
- 결과발표 및 시상 10 ~ 11월중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추천방법

-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abg@sskorea.or.kr)

공모내용

- 개인 본인의 경험을 담은 멘토링 활동 내용 및 우수사례
- 단체 운영 중인 멘토링 사업(프로그램) 및 해당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사례

포상규모

- 대통령표창 1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0점
- 민간단체장표창 8점
- ※ 포상 최종규모는 하반기 확정(행정안전부 협의 후)

관련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사업단 ☎ 070-4044-5059



복/지/만/평

신념

이창신 www.bokmani.com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